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1년 7월 1일 목요일

SSG 최정이 밝힌 ‘6년 연속 20홈런’ 의미

“큰 부상이나 큰 슬럼프 없이 잘해냈다는 영광스러운 기록”

이승엽·박병호·최형우 등 역대 4명 뿐
팀 승리에 도움이되는 많은 안타 욕심도



최정

SSG 랜더스 간판타자 최정(35)은 29일 인천 삼성 라이온즈전 4회말 솔로아치를 그리며 6년 연속 20홈런 고지를 밟았다. 최정을 포함해 역대 4명에게만 허용된 대기록이자, 홈런 타자의 상징이다. 8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쳐낸 삼성 이승엽(1997~2012년·2004~2011년 해외 진출)과 7년 연속 20홈런 고지에 오른 히어로즈 박병호(2012~2020년·2016~2017년 해외 진출), 최정처럼 6년 연속 20홈런을 날린 KIA 타이거즈 최형우(2013~2018년) 등은 KBO리그 대표타자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들이다. 한마디로 공인받은 거포라는 의미다.

최정은 데뷔 2년째인 2006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터트리며 꾸준함을 자랑했고, 2016년(40개)과 2017년(46개)에는 2년 연속 홈런왕에도 올랐다. 이승엽만이 오른 개인통산 400홈런 고지도 멀지 않았다. ‘홈런 장인’이라는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활약상이다.

본인은 6년 연속 20홈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 최정은 “16년 연속 10홈런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기록”이라며 “큰 부상 없이 꾸준히 잘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기록이 있겠지만, 큰 슬럼프 없이 잘 해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정은 2018년 115경기에만 출전하고도 35홈런을 쳐내는 괴력을 뽐낸 바 있다.

‘홈런 장인’으로 통하지만, 정작 큰 욕심을 내진 않는다. 올 시즌을 앞두고 이진영 타격코치와 함께 선구안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힘쓴 것도 출루를 강화해 팀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는 “배트 중심에 맞춰 외야로 빠져나가는 안타를 많이 치겠다고 다짐했다”며 “홈런은 많이 쳐야 40~50개지만, 안타는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다. 강한 팀들은 많은 안타로 계속 찬스를 이어가지 않나. 안타를 많이 치고 싶은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정은 3-3 무승부로 끝난 30일 삼성과 더블헤더 제1경기에서도 멀티홈런(3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로 제 몫을 다했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3·4·6면
인천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최고의 ‘창·방패’ 황의조·김민재 뽑았다

김학범호, 도쿄올림픽 최종엔트리 18명 발표…‘멀티 공격수’ 권창훈도 와일드카드 발탁



7월 도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금메달을 노리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의 와일드카드 3총사가 확정됐다. 스트라이커 황의조, 센터백 김민재, ‘다용도 공격수’ 권창훈(왼쪽부터)이다.

스포츠동아DB

‘2018 AG 금’ 콤비, 올림픽 메달 도전
의지 강했던 황의조, 구단 적극 설득
중앙수비 김민재 거취문제 승선 변수
김민재 카드 불발뻔 ‘박지수가 플랜B’
권창훈 2번째 올림픽 최고의 생일선물



한국축구 최고의 창과 방패가 도쿄로 향한다. 스트라이커 황의조(29·보르도)와 중앙수비수 김민재(25·베이징 귀안)가 올림픽에 출전한다.

김학범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은 30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최종 엔트리 18명을 공개했다. 황의조와 김민재는 와일드카드(만 25세 이상·도쿄대회만 한정)로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와일드카드 1명은 ‘다용도 공격수’ 권창훈(27·수원 삼성)이다.

황의조와 김민재는 2018지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서 김 감독과 호흡을 맞춰본 사이다. 당시 한국은 2014년 인천AG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미 조정은 있었다. 30명이 참가한 6월 1차 소집 때 선발된 조규성(김천 상무), 오세훈(울산 현대)이 23명으로 줄어든 2차 소집 명단에서 빠졌다. 김 감독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소 1명 이상의



올림픽축구대표팀 김학범 감독이 30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 엔트리 18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3년 전 AG를 앞두고 일본 J리그 감바 오사카에서 뛰던 황의조가 와일드카드로 선발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인맥축구’란 비난이 상당했다. 그러나 AG에서 9골을 터트리며 득점왕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자 모든 비난은 사라졌다.

누구보다 ‘김학범 축구’를 잘 이해하는 황의조는 도쿄올림픽 출전 의지도 보였다. 이미 국가대표팀 소집 기간 중 인터뷰에서 “올림픽의 부름을 받으면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본인의 의지가 강했고 구단을 적극 설득해줬다”며 고마워했다.

김민재도 실력으로는 국내 최고다. 득직한 체격에

최전방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황의조의 발탁이 유력할 수밖에 없었다.

황의조의 퍼포먼스는 대단하다. A매치 36경기에서 14골을 뽑은 그는 2020~2021시즌 프랑스 리그앙(1부) 36경기에서 12골·3도움을 올렸다. 팀 내 득점 1위로 보르도의 기둥다웠다.

과거 K리그1(1부) 성남FC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났던 김 감독과 황의조의 인연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힘과 스피드를 두루 갖춘 그를 넘볼 수 있는 자원은 현실에선 보이지 않는다. 단기 토너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정감을 위해 와일드카드를 중앙수비수에 쓸 것이란 전망은 꾸준히 나왔다.

다만 올림픽 출전을 100% 장담할 순 없다. 아직 거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FC포르투(포르투갈)와 베이징이 김민재를 놓고 구단간 이적협상을 마쳤다는 소식은 들려왔으나, 개인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

김 감독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차출 불발에 대비한 플랜B가 있으나 해결 방안을 꼭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올림픽 규정에 따르면 경기 24시간 전까지 소속팀의 반대나 부상 등에 한해선 예비 엔트리(50명) 안에서 언제든지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박지수(김천 상무)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권창훈은 최고의 생일(6월 30일)을 맞았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대회에 이은 2연속 올림픽 출전이다. 당시 3골·1도움을 올렸다. 그는 “5년 전보다 책임감이 더욱 무겁다. 최고의 성적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올림픽대표팀은 7월 2일부터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마지막 강화훈련에 돌입해 13일(상대 미정)과 16일(프랑스) 평가전을 치른 뒤 17일 출국한다.

▶ 관련기사 2면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투타 검업 오타니의 만화같은 야구…27호·28호 연타석 광!광! ‘ML 홈런 단독선두’ ▶6면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롭게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